

동강대, 야구 명문 고려대 완파 '마이너의 반란'

동강대 야구부가 들쭉들쭉하다. 최근 개막한 '제 71회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야구 명문 고려대를 꺾으면서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창단 12년 만에 처음이다. 동강대는 내전김에 연세대마저 물리치며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동강대는 지난 9일 춘천 의암야구장에서 개막한 '제 71회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고려대를 11대 4,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동강대의 고려대 완파는 이번 대학 야구선수권 대회 사상 최고의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모든 팀이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표적 우승 후보팀을 콜드 게임으로 완파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선동열을 비롯, 김철환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해온 한국 대학 야구의 대표적 명문이다. 이번 대회에도 좌완 에이

제71회 대학야구선수권

11-4 콜드게임승

창단 12년만의 쾌거

기아 출신 홍현우 감독

"내일 연대와 16강전

멋진 경기 보여줄 것"

스 이승현을 선발로, 임양섭을 교체 멤버로 출전시키며 전력을 뽐냈고 타석에선 청소년 대표를 지냈던 김병석이 버티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31개 팀 가운데 우승을 다툴 후보팀으로 오르내렸다.

하지만 홍현우 감독을 중심으로 한 동강대 야구부의 공세는 무서웠다.

1회 초 선취점을 내줬지만 3회에 동점, 4회 역전을 이끌어낸 뒤 5회 박상기의 홈런 등으로 승기를 잡고 6회 5점을 뿔아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2년째 주축인 2부 리그의 동강대가 한국 대학 스포츠의 '호랑이'를 잡은 것이다. 마운드에서는 1학년 생인 김재현이 4점을 내주며 5와 3분의 1 이닝을 책임졌고 타석에서는 2학년생 김운이 5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리며 수훈감이 됐다.

동강대는 내전김에 연세대마저 꺾고 파란을 일으켰다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동강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와의 16강전을 벌인다.

홍현우 감독은 "지난 동계 시즌에서 모든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소화하며 기량을 키웠고 선수들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지난 9일 열린 동강대와 고려대의 경기에서 6회초 동강대 1루수 김운의 안타 때 홈을 향한 송구가 고려대 포수 이상욱의 미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대학야구연맹 제공>



윤석민·곽정철·김진우 등 재활 순조 '아기 호랑이' 성장에 탄탄해진 전력 합평이 뜨겁다

어깨부상으로 재활 중인 KIA 윤석민이 12일 합평 헬리자스필드에서 임준혁과 캐치볼을 하고 있다.



곽정철 홍백전 2이닝 투구

윤석민·임준혁 캐치볼

팔꿈치수술 김진우 30개 던져

수단은 최근 10경기에서 7승3패를 거두는 등 순항을 하고 있다. 성적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한층 탄탄해진 전력이다. 베테랑 김원식·김민우·신종길·김다원과 함께 이흥구·박찬호 등이 1군 재진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이진영·전상현·최원준·신범수 등 '아기 호랑이'들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1년 사이 부쩍 선수층이 두터워지면서 2군 엔트리 등록을 놓고 행복복고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특급 재활군'의 움직임도 순조롭다. 혈행장애로 재활군이 됐던 곽정철의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하면서 몸을 풀 곽정철은 11일 진행된 홍백전에서도 2이닝을 던졌다. 지구 최고 구속은 144km를 찍었다. 곽정철은 13일 화성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부상 이후 세 번째 실전 피칭에 나선 예정이다.

선발진들도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팔꿈치 수술로 재활중인 김진우가 불펜 피칭에 나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김진우는 "30개 정도 공을 던졌다. 7~8번 정도 피칭을 했다. 통증 없이 복귀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칭스태프는 7월을 목표로 김진우의 복귀 스케줄을 준비했다.

부상으로 나란히 선발 자리를 비운 임준혁과 윤석민은 이날 캐치볼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어깨 통증으로 4월2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윤석민은 앞서 두 차례

캐치볼을 소화한 상태다. 윤석민은 "어게가 많이 좋아졌다. 불펜 피칭도 곧 들어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임준혁은 이날 처음 공을 들었다. 지난 4월 2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최준석의 타구에 왼쪽 종아리를 맞으면서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서 병원 신세까지 질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좌측 옆구리 근육 미세 파열로 빠졌던 김운동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오는 14일 귀국한다. 왼쪽 엄지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한승혁도 지난 10일 재활군에 합류해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갔다.

한편 KIA 퓨처스 선수단은 오는 23일 챔피언스필드 나들이에 나선다. 퓨처스리그 야간 경기 정례회에 따라 경찰 야구단과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23일 오후 6시에 경기를 치른다. /함평=김여율기자 wool@

추격포 'KANG'

강정호 시즌 3호 홈런 등 2안타... 결승특점도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3호 홈런으로 추격의 발판을 다지고 결승 득점까지 책임지면서 팀의 역전승을 견인했다.

강정호는 1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서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2-4로 뒤진 7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추격의 솔로포를 터트렸다.

강정호는 신시내티 선발투수 알프레드 사이먼을 상대로 노볼-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에서 3구째인 시속 122km 커브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3호 홈런을 생산했다.

지난해 9월 무릎 수술을 받고 긴 재활을 마친 강정호는 지난 7일 복귀전에서 연타석으로 홈런 2개를 쏘아 올린 뒤 4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복귀 5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트리면서 여전한 장타력을 뽐냈다.

강정호는 이날 3타수 2안타(1홈런) 2득점 1타점으로 활약하며 시즌 타율을 0.250에서 0.333(15타수 5안타)로 끌어올리며 3할대 타율에 진입했다.

0-1로 뒤진 2회초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4회초 1-1 균형을 맞춘 이후 2사 1루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강정호는 2-4로 뒤진 6회초 2사 1루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1루 주자 스탈링 마르테가 2루 도루에 실패해 그대로 이닝이 끝나 타격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이때 도루 실패 판정에 항의하던 마르테와 클린트 허틀 감독이 최장을 당해



피츠버그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렸지만, 7회초 다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가 솔로포를 날리면서 '전위위'의 발판을 다졌다.

피츠버그는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조시 해리슨의 솔로포로 다시 4-4 동점을 맞췄다.

강정호는 9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로스 올렌도프를 상대로 유격수 내야안타를 쳤다. 이후 상대 유격수 코자르트의 1루 악수공 실책으로 2루를 밟았다. 강정호는 다들타자 로드리게스의 희생번트로 3루에 안착했고, 조디 머서의 우전 적시타에 홈에 들어왔다. 강정호는 4-4 균형을 깨는 역전 결승 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피츠버그는 9회말 투수 마크 멀렌슨이 2사 1·2루 위기를 막으면서 1점 차(5-4)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김광수 "벌써 1년...KIA는 고마운 팀"

덕아웃 T 특특

▲올해 안에 꼭 맞습니다= 서동욱이 올 시즌 목표를 언급했다. 서동욱은 지난 1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7회 1사에서 솔로포를 기록했다. 시즌 4호 홈런. 이날 서동욱의 타구는 챔피언스필드 외야 홈런존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홈런존에는 비거리가 부족했다. KIA는 외야 홈런존을 때리면 홈런존에 전사된 것과 동일한 차를 부상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서 두산 김재환과 KIA 최희섭이 홈런존의 주인공이 됐다. 아쉬다는 반응에 서동욱은 "두고 보세요. 올해 안에 꼭 맞습니다"며 홈런존 홈런을 예고했다.

▲예배배팅이었다= 타격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기태 감독도 감탄하게 한 이범호의 안타였다. 이범호는 11일 2루타 3개를 연달아 때려내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줬

다. 세 타석 연속 2루타를 때려냈다는 점도 놀랐지만 김 감독을 더욱 감탄하게 한 것은 이범호의 스윙이었다. 김 감독은 "두, 세 번째 2루타는 정말 예술 배팅이었다. 바깥쪽 공을 손목으로 멋있게 때려냈다"며 "스프링 캠프 때부터 좋았다. 개막 때 안 좋았기는 했는데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때쯤 왔었죠= 벌써 1년이다. 김광수에게는 잊지 못할 지난 1년이었다. 김광수는 지난해 5월6일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에서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유창식, 오준혁, 노수광과 함께 동지를 옮겼던 김광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시즌 KIA의 필승조로 맹활약하면서 제 2의 야구 인생을 열었다. 12일 훈련을 끝내고 들어오던 김광수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다. 이 정도 날씨가 KIA에 왔었다. 내게는 정말 고마운 팀이다"고 웃었다.

/김여율기자 wool@kwangju.co.kr

'V10' 유니폼 입고 서재응·최희섭 배웅

15일 한화전서 합동 은퇴식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009년 우승 유니폼을 입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서재응과 최희섭을 배웅한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빅 리거' 서재응과 최희섭의 합동 은퇴식을 개최한다.

이날 은퇴식의 주제는 '영광의 역사를 함께 한 우리 선배(Good-bye Nice & Big)'다. '코리아 메이저리거 1세대'로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타이거즈의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서재응과 최희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후배들을 이끌며 팀에 헌신했던 두 사람의 활약을 기리고,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경기 전과 후에 진행되며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식, 기자동차 '니로'를 활용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서재응과 최희섭의 아들은 시구자로 나선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유니폼 반납 및 고별사, 그라운드 퍼레이드, 선수단 행가례가 진행된다.

선수단은 2009년 우승 유니폼을 입고 두 선수를 추억하게 된다. 이날 선수들은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2009년 당시 유니폼(챔피언스 저지)을 입고 경기에서 나서게 된다. 투수들은 등번호 '26'과 '서재응'이 수놓아진 유니폼을, 야수들은 '23'과 '최희섭'이 수놓아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동료와 선후배 선수들이 서재응과 최희섭을 대신해 마지막 경기를 뛰는 의미다.

또 이날 입장권은 서재응과 최희섭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26과 23으로 디자인된 은퇴식 엠블럼을 바탕으로 특별 제작된다. /김여율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 7회초 시즌 3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사진은 이날 강정호가 솔로포를 터뜨린 후 상대 포수 터커 바니트 앞에서 공중을 향하여 손가락을 올려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